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융합연구: 제 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하영선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Based on the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Young-Sun Ha
Department of Nursing, Kyungi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의 위험도를 비교·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제 13차(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1.20배(CI: 1.10-1.31) 높았고, 반면에 패스트푸드는 1.28배(CI: 1.19-1.38)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험행위는 현재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배(CI: 3.17-3.84), 현재 음주는 3.36배(CI: 3.14-3.96), 고카페인 섭취는 1.11배(CI: 1.04-1.19), 위험 성행동은 2.29배(CI: 2.06-2.55) 더욱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융합, 청소년, 직업, 식습관, 건강위험행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For this study raw data from the 13th Youth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2017) was examined.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for 62,823 adolesc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art-time job.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4.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which the complex sample design was applied. The odds ratio of no fruit intake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1.20 (CI: 1.10-1.31). The odds ratio of fastfood intake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1.28 (CI: 1.19-1.38). The odds ratio of present smoking in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t-time job compared to adolescents who have not experienced a part-time job was 3.48 (CI: 3.17-3.84). The odds ratio of present drinking was 3.36 (CI: 3.14-3.96). The odds ratio of high caffeine intake was 1.11 (CI: 1.04-1.19). The odds ratio of high caffeine intake was 2.29 (CI: 2.06-2.55). In developing health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 according to part-time experience.

Key Words : Convergence, Adolescent, Job, Dietary Habits, Health Risk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 Young-Sun Ha(ysha@kiu.kr)

Received March 28,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3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10,119명을 대상으로 한 안선영 등[1]의 연구에서 중학생 때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은 10.7%이며, 고등학생은 3분의 1 이상이 3학년 1학기까지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의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2].

청소년들은 일회성 전단지 돌리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중국집, 카페, 분식집 등에서 아르바이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 없는 학생들보다 현재 생활만족도가 낮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약 30% 정도의 청소년들이 부당노동행위를 겪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3].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당 노동시간, 노동부담 그리고 스트레스적 노동 경험이 노동 학업 간 갈등을 일으키고 학교적응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특히 주당노동시간은 학교 적응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정규 노동과 구분되는 아르바이트생은 30분 이하의 짧은 식사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 야간, 시간 외 근무자의 결식률이 높으며, 식사하는 장소의 불안정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쉽게 관찰된다. 식사 장소로 별도의 공간이 아닌 일하는 곳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하며, 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5]. 청소년의 건강행동 점수와 식습관 점수는 상관도가 높았고, 유의함이 있다고 알려졌다[6].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평생 동안 음주 경험의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음주 경험은 문제 음주가 될 확률이 높으며, 긍정적 식습관이 적을수록 부정적인 음주습관의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7].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 흡연 등의 비행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계속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 흡연 등의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8].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시행한 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중학교 3

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주와 흡연, 경비행, 중비행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아르바이트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비행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가 비행에 끼치는 효과는 비교적 상당히 오래 계속됨을 알 수 있다[9].

건강위험행위의 변수인 흡연과 음주, 흡연과 조기성행위, 음주와 조기성행위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성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건강위험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관련변수는 학교계열, 성별, 교우관계, 학교애착, 학업성취도, 우울, 자기통제력, 부모의 반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등학생의 건강위험행위를 1/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10]. 청소년들의 고용 시간과 흡연, 음주의 문제 행동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11], 유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12].

현재까지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황, 노동인권, 진로지도, 지원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1]. 청소년 건강행위 실태 파악은 학교 건강증진사업의 기초가 된다. 학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에 기초하여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학교보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13].

이에 이번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여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한다.
- 3)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의 위험도를 비교·예측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 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자료와 연구 대상자

본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행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사업계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및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을 위해 실시된 정부승인통계조사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 공개와 활용규정을 준수하여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원시자료 이용자 동의의를 인준받고 난 후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았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자료는 2017년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4월 기준)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된 익명의 자기기입식 조사이다.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의 단계로 나누어 표본추출과정이 진행되었다. 전국 39개 지역과 학교 급(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을 층화변수로 하여 모집단을 117개 층위로 나누었다. 표본 배분은 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로 먼저 배분한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표본추출은 학교를 1차 추출단위, 2차 추출은 학급으로 한 계통추출법이었다. 1차 추출은 영구난수추출법, 2차 추출은 선택된 표본에서 학년별로 학급 하나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국 800개교, 64,991명이 최종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자수는 조사당일 기준의 출석부상 학생 수이며, 표본학급 학생 중 장기결석, 특수아동, 문자해독에 장애가 있는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택된 표본 중 799개교 62,276명이 참여하여 학생 수 기준 95.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제공되는 원시자료는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고 이상치 처리를 거쳐 자료를 정제하였다. 가중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산출하였고 원시자료에 가중치변수(W)로 제공하고 있다. 가중치는 추출률 역수와 응답률 역수를 곱한 것에 가중치 사후보정률을 곱한 값이다. 추출률은 표본설계의 추출과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고, 응답률은 표본학

교 학년별 대상자 중 당일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가중치 사후보정률은 학년별가중치, 학교급별(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군 내 성별 가중치 합이 2017년 전국 중·고등학생 수(4월 기준)와 같도록 계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본이 모집단을 대변하며, 중학교 응답자수 30,885명, 고등학교 응답자수 31,391명이 2017년 전국 중학생 1,370,462명, 전국 고등학생 1,657,026명(4월 기준)을 대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는 식별 불가능한 고유번호로 이루어져 대상자 개별 정보가 없고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된 설문으로 실시되었다[14].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확인(HR-004-01) 후에 진행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성적, 가정의 경제 수준, 거주형태 등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과 여로, 학년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학년으로,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 수준은 5단계로 구분된 항목을 3단계로 재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는 부모와 지내는지, 친척집에 있는지, 하숙·자취·기숙사 등 혼자 지내는지 또는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에 지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2.3.2 식습관

식습관 변수는 과일, 채소, 패스트푸드 섭취 등을 분석하였다. 과일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과일(과일주스 제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과일, 채소 비섭취군', '주1~2번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과일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채소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식사할 때 채소반찬(김치제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채소 비섭취군', '주1~2번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채소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일주일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패스트푸드 비섭취군’, ‘주1~2번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패스트푸드 섭취군’ 으로 분류하였다.

2.3.3 건강위험행위

건강위험행위 변수로는 현재흡연, 현재음주, 약물사용, 위험 성행동, 폭력경험, 고카페인 음료섭취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흡연은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표기한 경우는 ‘비흡연’, ‘월 1~2일 이상’ 이라고 표기한 경우는 ‘현재흡연’ 으로 나누었다. 현재음주는 ‘최근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최근 30일 동안 없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음주 안함’으로 정의하고 ‘월 1회~매일’은 ‘현재음주’로 정의하였다. 약물사용은 ‘지금까지 습관 또는 일부러 약물을 먹거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위험 성행동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사용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폭력경험은 ‘최근 일 년 동안 친구, 선배, 성인에게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에서 ‘0번’은 없음으로, 1번 이상은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고카페인음료 섭취는 ‘최근 일주일동안 고카페인(또는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에 대한 답변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마시지 않았다’는 ‘없음’, ‘주 1-2번 이상’인 경우는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2.3.4 자료 분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원시자료는 표본추출과정에서 표본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집단을 층화하여 지역과 학교 급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층을 나누고 있다. 통합한 표본설계 통합 층을 원시자료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자료 분석 시 층화변수로 표본설계 통합층변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통합층, 집락변수, 가중치, 유한모집단수정계수를 적용하여 IBM SPSS Statistics 24.0 program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일반 특성,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는 빈도, 백분율 그리고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식습관과 건강위험행위의 위험도는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 청소년 62,276명을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8,404명이었으며, 비교 표본으로 분석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53,872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인원의 13.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olescents by part-time work experience (N=62,276)

Characteristics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χ^2	P	
	n	%	n	%			
Gender	male	22,245	51.8	4,379	10.80	.216	
	female	26,627	48.2	4,025			46.3
Grade	Middle school 1	10,041	16.9	148	4610.85	<.001	
	Middle school 2	9,965	17.2	412			4.2
	Middle school 3	9,518	16.2	801			8.1
	High School 1	8,543	16.8	1,622			19.2
	High School 2	8,170	16.8	2,630			32.7
	High School 3	7,635	16.1	2,791			34.3
School Record	High	22,354	41.4	2,170	1375.20	<.001	
	Medium	15,614	29.2	2,196			25.9
	Low	15,904	29.5	4,038			48.8
Family prosperity	Affluent	22,405	42.3	2,397	1188.82	<.001	
	Medium	24,676	45.4	3,906			46.5
	Poor	6,791	12.3	2,101			25.0
Residence type	Family	5,1430	95.9	7,732	359.18	<.001	
	Relative	344	0.6	152			1.8
	Lodging, etc.	1903	3.2	398			4.1
	Childcare facilities	195	0.3	122			1.4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chi^2=10.80, p=.216$). 학년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4610.85, p<.000$).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1.5%, 중학교 2학년 4.2%, 중학교 3학년 8.1%, 고등학교 1학년 19.2%, 고등학교 2학년 32.7%, 고등학교 3학년 34.3%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학교성적을 '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48.8%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29.5%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의 주관적인 학교성적에 대한 인식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chi^2=1375.20, p<.001$). 또한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가 '하'라고 답한 경우는 25.0%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12.3%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 상태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chi^2=1375.20, p<.001$).

3.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정신 건강 및 건강위험행위는 Table 2와 같다. 식습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과일 섭취 없음은 14.0%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9.4%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74.43, p<.001$).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채소

섭취 없음은 5.1%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4.1%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9.02, p<.001$).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는 85.1%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79.5%보다 높게 나타났다($\chi^2=142.10, p<.001$).

건강위험행위에서 현재흡연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23.9%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3.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5092.15, p<.001$). 현재음주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42.3%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11.9%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chi^2= 41.78, p<.001$). 고카페인 섭취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29.6%,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23.0로 나타났다($\chi^2= 41.78, p<.001$). 위험 성행동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15.9%,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3.5%로 나타났다($\chi^2= 2336.12, p<.001$). 약물 경험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3.4%,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0.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chi^2= 483.39, p<.001$), 폭력 경험 비율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의 경우 5.5%,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 2.3%로 나타났다($\chi^2= 295.59, p <.001$).

3.3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 위험행위 상대위험도 예측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한 상대위

Table 2. Comparison of Eating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between Groups

(N=62,276)

Characteristics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χ^2	P	
		n	%	n	%			
Eating characteristics	Fruit	Yes	48,785	90.6	7,247	86.0	174.43	<.001
		No	5,085	9.4	1,157	14.0		
	Vegetables	Yes	51,707	95.9	7,972	94.9	19.02	<.001
		No	2,165	4.1	432	5.1		
	Fast food	Yes	42,542	79.5	7,088	85.1	142.10	<.001
		No	11,330	20.5	1,316	14.9		
Health risk behavior	Present smoking	Yes	1,809	3.6	1,960	23.9	5092.15	<.001
		No	52,063	96.4	6,444	76.1		
	Present drinking	Yes	6,072	11.9	3,525	42.3	4065.37	<.001
		No	47,800	88.1	4,879	57.7		
	High caffeine intake	Yes	12,341	23.0	2,500	29.6	177.23	<.001
		No	41,531	77.0	5,904	70.4		
	Sexual behavior	Yes	1,753	3.5	1,280	15.9	2336.12	<.001
		No	52,119	96.5	7,124	84.1		
	Drug experience	Yes	382	0.7	274	3.4	483.39	<.001
		No	53,490	99.3	8,130	96.6		
Violence experience	Yes	1,209	2.3	467	5.5	295.59	<.001	
	No	52,663	97.7	7,937	94.5			

Table 3. Odds Ratio of Eating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between Groups
(N=62,276)

Characteristics (Ref.)	Do not experienced part-time work	Experienced part-time work		
		Odds ratio(95%CI)	P	
Eating characteristics	Fruit (no)	1	1.20(1.10-1.31)	<.001
	Vegetables (no)	1	1.04(0.92-1.18)	.521
	Fast food (yes)	1	1.28(1.19-1.38)	<.001
Health risk behavior	Present smoking (yes)	1	3.48(3.17-3.84)	<.001
	Present drinking (yes)	1	3.36(3.14-3.96)	<.001
	High caffeine intake (yes)	1	1.11(1.04-1.19)	.002
	Sexual behavior (yes)	1	2.29(2.06-2.55)	<.001
	Drug experience (yes)	1	0.88(0.63-1.25)	.484
	Violence experience (yes)	1	1.28(1.07-1.52)	.007

험도는 Table 3과 같다.

식습관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과일을 덜 섭취하는 비율이 1.20배(CI: 1.10-1.31) 높았고, 반면 패스트푸드 섭취는 1.28배(CI: 1.19-1.38)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비섭취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위험행위는 현재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배(CI: 3.17-3.84)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음주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36배(CI: 3.14-3.96) 더욱 높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섭취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1.11배(CI: 1.04-1.19)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 성행동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2.29배(CI: 2.06-2.55) 더욱 높게 나타났다. 약물 경험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폭력 경험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이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1.28배(CI: 1.07-1.52) 더욱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식습관, 건강위험행위를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위험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3.8%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8.1%이었으나 고등학교 1학년 19.2%, 고등학교 2학년 32.7%로 나타나 이는 고등학교 1~2학년 시점의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5]와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교성적은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연구결과[16]와 일치한다.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 중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정 경제수준은 '하'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16]와 유사하다. 입시위주 교육 환경에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교 적응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데[17],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은 과일섭취가 없는 경우가 1.2배, 패스트푸드 섭취는 1.28배 높았다. 이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은 패스트푸드의 섭취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과일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와 유사하다[18].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현재흡연 비율은 23.9%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3.48배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구 경북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을 표본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의 흡연은 청소년기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며[19], 13~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길수록 흡연이 더 많다는 연구와 유사하다[20].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다. 청소년 현재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흡연 예방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음주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주, 이승민, 안홍석의 연구[21]에서 음주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음주빈도를 높이며[15], 주당 10 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22].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음주흡연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누적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흡연, 음주를 강화하므로[9, 23], 청소년을 위한 흡연,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흡연,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 경험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과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 당 20 시간 이상 일자리를 가진 고등학생에게서 마약 사용이 증가한다고 연구결과[24, 25]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와 약물사용 경험의 관계에 관해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카페인 섭취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 보다 1.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방지를 위해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심박수 증가, 떨림,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26]를 살펴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섭취에 대한 올바른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험성행동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2.29배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음주빈도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으며[15] 상황적 요인에서의 음주는 성 접촉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27]를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위험성행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 경험의 상대위험도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1.28배 높게 나타났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폭력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 식품부서 근로자가 잡화, 가전, 아동부서보다 언어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4.65배

높다는 연구결과[28]를 살펴볼 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중국집, 카페, 분식집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으므로[3]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식습관 및 건강위험 행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단면조사 연구의 자료수집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경험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위험요인을 찾아가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전략을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의 상대 위험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패스트푸드 섭취 위험도가 높은 반면 과일 섭취가 낮으며, 현재흡연, 현재음주, 고카페인 섭취, 위험성행동, 폭력 경험의 상대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다. 학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별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S. Y. Ahn, H. J. Kim, Y. B. Kang, G. N. Bae, H. Y. Cho & M. K. Park. (2013). A Study on the Nature of Korea Youth's Experience with Career Experience Programs and their Part-time Job.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1-314.
- [2] K. H. Yi, J. H. Shim & S. Y. Woo. (2016). Surviv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First Experience of Part-time Work, *Studies on*

- Korean Youth*, 27(1), 95-124.
DOI: 10.14816/sky.2016.27.1.95
- [3] K. J. Cho. (2010).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 about the Adolescents' Part-time Job and the Labor Actual Condi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 297-319.
- [4] S. S. Kim & Y. S. Kim. (2009). A Study on Paths of the Effects of Adolescents' Part-Time Work Experiences on Mild and Serious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1), 139-161.
- [5] S. U. Kim. (2018). The Food Instabilities of Young Arbeit Worker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28(1), 219-261.
- [6] J. S. Jang, H. J. Seo & M. A. Park. (2017). Affecting Factors on Food Habits related Health Behavior Activities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30(2), 297-304.
- [7] S. H. Lee, M. E. Yun & S. S. Chun. (2014). Relationship between Korean Juveniles' Dietary Habits and Drinking Alcohol - The Result of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2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and Community Health Education*, 15(2), 23-38.
- [8] S. H. Mun. (2003). Relationship betwee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83-103.
- [9] S. E. Kim. (2012). Reconsidering a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Youth Employment and Delinquency. *The Police Science Journal*, 7(2), 431-458.
- [10] E. S. Lee & H. Y. Kim. (2008). The Related Factors on Health Risk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2(2), 255-265.
DOI :10.21896/jksmch.2008.12.2.255
- [11] R. Apel, R. Paternoster, S. D. Bushway & R. Brame. (2006). A Job isn't just a Job: The Differential Impact of Formal versus Informal Work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Crime and Delinquency*, 52(2), 333-369.
DOI:10.1177/0011128705278633
- [12] F. Robert et al. (2014). Impulsivity, Sensation-seeking, and Part-time Job Status in Relation to Substance Use and Gambl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4(4), 460-466.
DOI:10.1016/j.jadohealth.2013.09.014
- [13] E. O. Park & M. Y. Hyun. (2005).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Surveys on Health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18(1), 59-69.
- [14] *The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2018). [Online]. www.cdc.go.kr
- [15] J. Y. Kim & D. Y. Jang. (2018). The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 on School Maladjustment: Double Mediation Effect of Alcohol Drinking and Aggression on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1, 1-27.
- [16] J. S. Kim & B. H. Lee. (2010). A Study on Participation in Part-Time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21(3), 33-59.
- [17] S. H. Park, H. O. Kim & K. S. Park. (2007). Eating Behavior, Physical Activities and Obesity Degree of Adolescents in a Region of Jeonbuk Provinc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2), 23-33.
- [18] M. Y. Jo & T. S. Hyun. (2014).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Perception and Consumption Frequency of Fast Foods between Youths Working Part - Time at Fast Food Restaurants and other Food-related Service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47(3), 206-213.
DOI:10.4163/jnh.2014.47.3.206
- [19] K. S. Lee, P. S. Kang, T. Y. Hwang & S. K. Kim. (2008). Factors Related to Early Smoking of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1), 90-100.
- [20] F. C. Breslin & E. M. Adlaf. (2002). Part-time Work and Cigarette Use among Teenager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5), 356-359.
- [21] H. S. Ahn, S. M. Lee & S. J. Bae. (2010). Original Articles : Comparison of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Practice Level of Eating Behavior Guidelines Between Part-time Working and Non-working Adolescents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in Yongin, G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5, 17-24.
- [22] M. J. Paschall, R. L. Flewelling & T. Russell. (2004). Why is work intensity associated with heavy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4(1), 79-87.
DOI: 10.1016/S1054-139X(03)00206-4
- [23] D. R. Chen et al. (2006). Employment Experience in Relation to Alcohol, Tobacco, and Betel Nut Use among Youth in Taiwa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4(3), 273-280, 2006.
DOI: 10.1016/j.drugalcdep.2006.03.003
- [24] R. Paternoster, S. Bushway, R. Brame & R. Apel. (2003). The Effect of Teenage Employment on Delinquency and Problem Behaviors, *Social Forces*, 82(1), 297-335.
- [25] R. F. Valois, Ashley C. A. Dunham, K. L. Jackson & J. Waller. (1999).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and Substance Abuse Behaviors among Public High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4), 256-263.
- [26] Y. M. Yang, W. Huh, E. Jeong, J. J. Lee & E. J. Choi. (2014). An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s of

High-Caffeinated Energy Drinks and Adverse Effects by Surveys from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58(6), 387-396.

- [27] G. J. Yoon. (2002).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Females` Sexual Behavio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 107-121.
- [28] S. Y. Kim & S. N. Yun. (2012). Conditions of Workplace Violence Experience among Worker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 211-220.

하 영 선(Ha, Young Sun)

[정회원]



- 2014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 건강증진, 청소년, 동기면담
- E-Mail : ysha@kiu.kr